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일고 야구부 3학년 선수들이 지난 1일 병신년(丙申年) 첫 해가 떠오른 광안리에서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점프를 하고 있다.

‘야구 명문’ 광주일고 부산서 새해 다짐

“선배들 빛나는 역사 이어받자” 훈련 구슬땀 서건창 사촌 동생 정진석 등 19명 첫 캠프

새해 해맞이와 함께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2016시즌이 밝았다. 광주일고는 지난달 28일 부산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이들은 동의대와 서면 월드 Wing 센터에서 기술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하면서 201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캠프를 치르는 광주일고 선수들은 지난 1일 ‘새로운 해’를 맞는 것으로 2016시즌

일정을 시작했다.

동이 트기 전 김진섭 감독을 필두로 광주일고 선수들이 부지런히 길을 나섰다. 이들의 목적지는 광안리였다. 백사장에 도열해 있던 광주일고 선수들의 눈길에 일제히 바다 위로 향했다.

붉은 해가 광안리 바다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은 것이다.

새로운 해를 맞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이내 광안대교는 금빛으로 물들었고, 선수들은 2016시즌의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새해를 열었다.

광주일고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1년 터울로 나란히 야구를 했던 서재웅·김병현·최희섭 ‘빅리거 3인방’으로 유명한 광주일고는 지난해 강정호가 피츠버그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널리 알렸다. 강정호의 다부진 활약과 함께 뉴욕타임즈에 광주일고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 KIA 김기태 감독이 고향팀에서의 첫 해를 강렬하게 장식했고, 두산 허정민

이 알토란 같은 활약 속에 우승 반지를 끼는 등 국내 무대에서도 광주일고의 활약은 뜨거웠다.

올 시즌 루키라는 이름으로 두근거리는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다.

에이스 김현준이 KIA의 우선 지명을 받으면서 사촌형 유정식과 한 술 밥을 먹게 됐고, 내야수 류승현도 KIA 선수로 프로에 직행했다. kt 투수 노유성(성균관대)·한화 내야수 장진혁(단국대)도 대학 무대를 거쳐 프로에 뛰어들게 된 광주일고 출신이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역사를 만들고 싶은 이들로 부산 캠프는 뜨겁다. 올 시즌부터 ‘광주일고’라는 이름을 달

고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 19명의 신인 선수들도 정정오·김주호 코치의 지도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야구인 가족으로 눈길을 끄는 선수들도 있다. 넥센 서건창의 사촌동생인 정건석과 KIA 홍우태 코치의 아들 홍주영이 신입생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첫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후배들과 희망의 2016시즌을 그리는 ‘형님’들도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롯데 내야수 백왕중과 재기를 노리는 투수 정성철이 광주일고 캠프에 함께하고 있다.

주장 류승범(내야수)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야 한다. 2학년들이 잘 해주고, 잘 따라주어서 편하게 주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일고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부담감이 있다. 그래도 광주일고 선수라고 하면 인정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학교를 대표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느껴진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국대회 우승 한번 하고 싶다. 선수들 모두 잘 몸쳐서 목표를 이루겠다. 개인적으로는 1학년 때부터 부상에 시달렸는데 부상 없이 3할을 치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부산=글·사진 김여울기자 wool@

볼트 100m 9초58 세계신기록 경신 번개치나

리우올림픽 종목

① 육상

“금지약물 복용 의혹

러시아 선수 출전 금지”

미녀새 이신바예바

징계 안풀리면 출전 못해

‘달리기, 뛰기, 던지기에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하는 경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육상을 이렇게 소개한다. 306개의 금메달 중 47개(남자 24개, 여자 23개)가 육상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유력한 메달 후보가 없다. 한국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 13개, 은 8개, 동 7개로 역대 원정 대회에서 최고 성적인 종합 5위에 올랐지만 육상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세계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한국, 세계적으로는 ‘70억 지구촌’을 들쭉이게 할 육상 스타들이 리우올림픽을 위해 땀을 쏟고 있다.

◇볼트, 세계신기록 수립·3관왕 달성 할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다. 100m(9.58초), 200m(19.19초) 세계기록을 보유한 볼트는 런던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를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베이징 세계선수권에서도 100m, 200m, 400m 계주 우승으로 ‘역대 최고 스프린터’의 명성을 과

시했다. 볼트의 새해 목표는 리우올림픽 3관왕이다. 자신의 세계기록을 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인자’ 딱지가 붙은 저스틴 게이틀린(32·미국)이 볼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육상 중장거리 강국 케냐도 관심 대상이다. 케냐는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 7개, 은 6개, 동 3개를 따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여자 단거리의 ‘신성’ 대프네 시퍼스(24·네덜란드)도 흥미를 자아낸다. 시퍼스는 백인 선수로 ‘단거리 약소국’ 네덜란드 출신이다. 이런 그가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m에서 자메이카, 미국의 흑인 선수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세계 육상과 격차 좁힐까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육상에서는 약체다. 역대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이외의 육상 종목에서 메달을 따본 적이 없다. 마라톤도 리우에서는 메달을 기대할 실력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은 리우에서 또 한 번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경보의 김현섭의 기록도 관심사다. 그는 올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1시간21분40초로 10위에 올랐다. 세단뛰기 김덕현(30·광주광역시청), 경보 50km의 박철성(33·삼성전자), 남자 마라톤 노시완(23·코오롱), 여자 마라톤 김성은(26·삼성전자)이 세계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도 주목된다.

◇러시아 ‘미녀새’ 리우서 못 보나
국제육상연맹(IAAF)은 지난달 모든 러시아 육상 선수의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을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런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IAAF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게 도핑 실태를 완벽히 개선하지 않으면 리우올림픽에 단 한 명

의 육상 선수도 내보낼 수 없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육상 선수로는 세계기록을 28번이나 경신한 여자 장대높이뛰기 스타 엘레나 이신바예바(32)가 있다. ‘미녀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녀는 리우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현역 선수로 복귀했지만 IAAF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리우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연합뉴스

“100m 9초벽 두드리겠다”

리우올림픽 기대주

①육상 김국영

작년 U대회 ‘10초16’ 한국新 단거리 첫 올림픽 본선 진출

지난해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운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은 2016년 새로운 꿈을 꾸다.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 또 한 번 한국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

육상 단거리 불모지인 한국은 김국영을 바라보며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김국영은 7월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0년 6월 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자신이 기록한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긴 한국신기록이다.

김국영이 세운 한국기록 10초16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올림픽 기준 기록이다. 김국영은 한국 단거리 선수 중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다. 그는 11월말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내년 2월까지 훈련은 이어진 다.

김국영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한국신기록 세우고 나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기대에 보답하려면 오로지 운동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며 “그만큼 훈련을 더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9초대에 가까워질수록 기록 단축하는 게 더 어렵지만, 9초라는 벽을 계속 두드리려겠다”며 “나는 아직 커가는 단계다.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서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국영

●출생 1991년 4월19일(경기 안양)

●소속 광주광역시청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0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한국신기록(10초23)
- 2010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1위
- 2010 광주아시아안게임 국가대표
- 2011 홍콩 육상리그대회 400m계주 금메달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 2011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200m 1위
- 2014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100m 한국신기록(10초16)
- 2015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100m·200m·400m계주·1600m계주 1위

연합뉴스

“김현수는 엘리트”

볼티모어 부사장 기대감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2016년 전력을 전망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고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사례를 만든 좌타 외야수 김현수(28)다.

김현수의 영입을 진두지휘한 댄 듀켓 볼티모어 부사장은 더 자주 김현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듀켓 부사장은 3일 지역지 볼티모어 선이 게재한 인터뷰에서도 김현수를 언급했다. FA 크리스 데이비스와 잔류 협상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듀켓 부사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부문에서 착실히 전력보강을 했다. 우리는 2016시즌을 치를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크 트럼보와 김현수 영입을 ‘전력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듀켓 부사장은 “트럼보는 메이저리그에서 두 시즌이나 30홈런 이상을 기록한 타자다”라고 말한 뒤 “김현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28홈런을 치며 힘을 과시했다. 김현수는 국제대회에서 엘리트 타자의 면모도 보였다. 이렇게 우리는 경쟁력 있는 야구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볼티모어 타선의 중심은 데이비스였다. 데이비스는 지난해 타율 0.262, 47홈런, 117타점을 올렸다. 볼티모어는 데이비스와 FA 협상을 벌이면서도 데이비스가 이탈할 것을 대비해 준척급 선수를 영입했다. 2년 7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현수도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한 준척급 FA다.

한편 볼티모어 선도 “김현수는 팀 출루율 상승을 이끌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